

모든제품서 피부 수분함유량 증가... 가격은 최대 11배 차이

핸드크림 10개 브랜드 제품 살펴보니

소비자원, 뉴트로지나 등 3개 제품 보습 유지성능 상대적으로 '우수' 발림성·촉촉함은 바세린이 '1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의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용량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은 ▲과일나라 ▲꽃을든남자 ▲네이처리퍼블릭 ▲뉴트로지나 ▲니베아 ▲록시당 ▲바세린 ▲이니스프리 ▲이습 ▲카밀(브랜드명 가나다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끈적임 등의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일한 용량당 가격이 최고 11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모두 핸드크림 사용 후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점~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발림성

(고르게 퍼 발라지는 정도)은 평균 3.6점인 가운데, '인텐스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평균 3.6점이었고, '인텐스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점수가 높았고, '인텐스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분감은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3.6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끈적임은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이 가장 낮은 2.4점을 받았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스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습)'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당)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 '인텐스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 2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이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133억 규모 총 7개 사업 통합공고

"미래성장 산업화·현안해결 위해 AI 등 융합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총 사업비 133억원)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개발(9억5000만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12억4500만원)' 등 2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이미 공고했으며 오는 3월중 선정평가가 진행된다.

계속 사업인 '2025 축산현안 대응산

업화 기술개발'(5억2500만원)과, 신규 사업인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48억7500만원)',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7억5000만원)', '국제협력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44억7000만원)' 사업은 1월 둘째주 공고 예정으로 모두 3월 중 선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지원 사업(5억원)의 경우 오는 2월(잠정) 사업이 공고된다.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통합정보서비스,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및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덜어 드리기 위한 발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 최신·쇄신·혁신 '3新경영' 선포

이병호 사장 "전 직원 역량 결집"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국정과제를 한층 더 충실하게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및 미래세대 경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공사 경영방향은 3대 신(新)경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최신(最新)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쇄신(刷新)경영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革新)경영이다.

공사는 농어촌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사업에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체계 구축 ▲풍요로운 물

복지 실현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 ▲활기찬 농어촌 공간 조성 실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영진 주도의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기로 했다.

이병호 사장은 "모든 국민이 농어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있는 경영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가 모두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5개월 단축

고발요청·관련업무 협약 개선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

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과 II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I 은 5000호, 신혼부부 II 은 2000호 공급한다.

/김대환 기자 kdh@